

곡성군, 과수화상병 예방 사전방제 필수

배 꽃눈 트기 전·사과 새 가지 나오기 전 전용약제 살포 “농촌진흥청 예측정보시스템 안내하는 시기에 살포해야”

곡성군이 지역 사과, 배 재배 농업인에게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약제방제 실시 당부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식물검역법상 금지병으로 병이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 예방이 중요하다. 곡성 지역의 경우 배 과수원은 꽃눈이 트기 전인 3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사과 과수원은 새 가지가 나오기 전인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화상병용으로 등록된 동제화합물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곡성군에서는 사과, 배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방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 예산 4천 1백만 원을 확보해 사과, 배 모든 농가에 방제 약제비 3회분을 지원한다. 개화 전 사전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농가에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방제 후 약제 봉투를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때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약제를 뿌린 뒤 과수 피해(약해,藥害)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하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한다. 방제 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처리 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화 전 방제를 마치고 나서는 과수가 꽃핀 뒤 개화기에도 2회에 걸쳐 과수화상병 전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상 관측 정보에 근거해 지역별 꽃 감염 위험도를 예측하여 개화기 방제 시기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에는 약제 살포 횟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참고 : 과수화상병 정밀예측시스템 : <http://fireblight.org>)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약제 방제와 함께 병원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해 수시로 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과, 배 농가에서는 개화 전 살포 외에 개화기에도 2회에 걸쳐 약제를 살포해야 하고, 살포 시기는 농촌진흥청의 예측정보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시기에 살포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양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기관

담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주관한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은 생산성 지수 측정과 생산성 우수사례 선정 두 개 부분으로 나눠 평가한다.

담양군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71개 지자체가 자율응모한 생산성 지수 측정 부문 중 보건·의료, 돌봄·복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응 역량,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수준, 탈빈곤율 등 7개 항목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최형식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싱싱한 제철 로컬푸드, 장성호 수변길서 만나세요”

장성군이 이달 5일부터 ‘장성호 수변길 마켓’의 문을 연다. 올해 말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 운영될 예정이다.

수변길 마켓은 장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장성호 수변길에 마련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다. 주말 평균 7000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수변길의 관광 수요를 농가 소득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먹거리를 중간 유통과정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은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개장 이후 이듬해 1억 5000만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는 3억 2000만 원까지 상승했다. 전년 대비 256%나 높아진 실적이다.

올해 목표 매출액은 5억 원이다. 군은 일반 부스를 17개에서 12개로 줄이고, 계절 특산품 부스를 9개까지 늘려 신선한 제철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호 수변길 마켓의 참여 농업인들이 장성 농산물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직거래 장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제21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심사결과 발표

최병숙 작 ‘선물 같은 일상의 행복’ 종합대상



종합대상(선물 같은 일상의 행복)



국외전 대상(번영과 풍요)



보존화 대상(풍요)

구례군은 제21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우수작품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최병숙 작가의 ‘선물 같은 일상의 행복’이 종합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9개국에서 408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압화 분야 심사는 기존 2차 심사서 공정성 추가 확보를 위해 3차 심사와 국민온라인 투표를 새로 도입해 추진했다. 보존화 분야는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 총 139점의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됐다.

분야별 대상 4개 작품과 최우수, 우수, 장려, 특선 등 75개 작품이 압화분야 국내전 수상작품으로 선정됐다. 국외전은 대상에 Lee Huei-Juan(대만)의 ‘번영과 풍요(Prosperity and Abundance)’를 비롯하여 최우수, 우수, 특선 등 39점의 우수작품이 뽑혔다.

보존화 분야는 유봉순 작가의 ‘풍요’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최우수, 우수, 장려, 특선 등 20작품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4월 21일에 개최하고 수상작품은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에 연중 전시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산림휴양 인프라 젠걸음...산림관광 활성화

화순군의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화순군은 산림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천자연휴양림과 백아산자연휴양림에 휴양타운과 트리빌리지를 추가 조성한다.

군은 한천자연휴양림 내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휴양관 1개소(3층, 연면적 871㎡)와 숙박시설 4동(2층, 연면적 511㎡)을 조성한다. 세미나·교육 목적의 대회의실을 설치해 숙박 시설과 연계, 활용도를 높여 차별화를 꾀한다.

휴양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한천자연휴양림 내 캠핑장, 유아숲체험원 등 기존 휴양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로 가족 단위 이용객부터 단체까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백아산자연휴양림에는 트리빌리지를 조성한다. 나무위의 오두막, 나만의 아지트 등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자, 새로운 경향에 맞춘 숲 체류형 이색 체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